

# 동남아 해외송금의 개발효과 분석

**오윤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아시아태평양실  
동남아대양주팀 부연구위원  
[yaoh@kiep.go.kr](mailto:yaoh@kiep.go.kr)

**이 응**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아시아태평양실  
인도남아시아팀 부연구위원  
[wlee@kiep.go.kr](mailto:wlee@kiep.go.kr)

**신민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아시아태평양실  
동남아대양주팀 연구원  
[mgshin@kiep.go.kr](mailto:mgshin@kiep.go.kr)

**박나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아시아태평양실  
동남아대양주팀 연구원  
[nrpark@kiep.go.kr](mailto:nrpark@kiep.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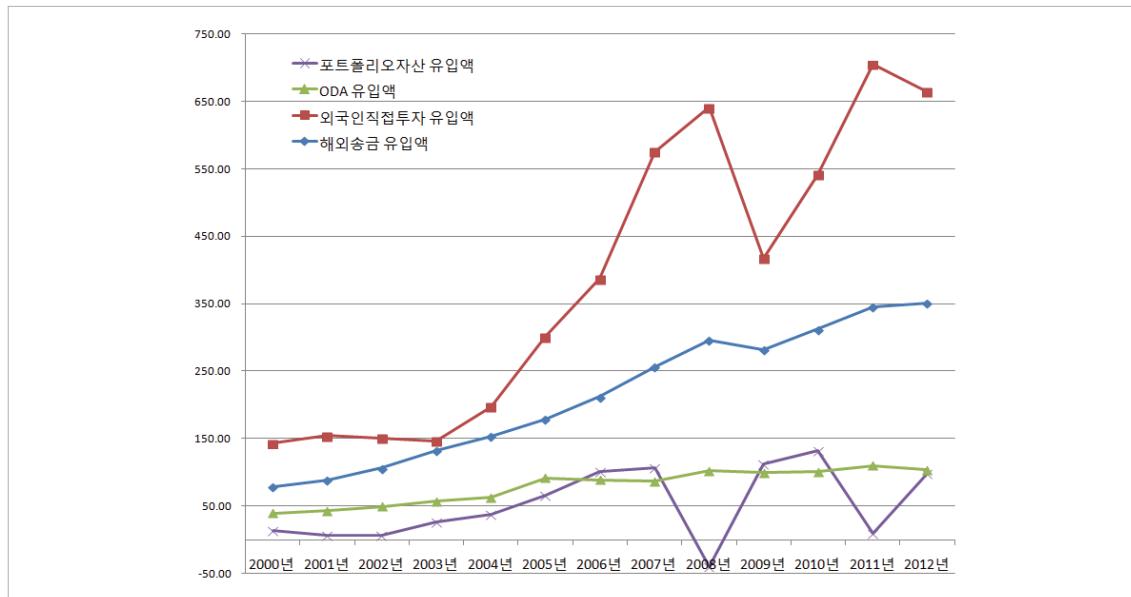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전 세계적으로 국가간 이주가 확대되면서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이 본국의 가족이나 친지에게 보내는 해외송금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 개발도상국으로 유입되는 해외송금은 2012년 3,500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2013년 4,040억 달러 추정), 포트폴리오 투자와 공적개발원조를 능가하는 규모에 이르고 있음.

그림 1. 개발도상국의 대외 유입액 추이(2000~12년)

(단위: 십억 달러)



주: 순유입액 기준.

자료: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검색일: 2014. 12. 9).

- 해외송금이 이주송출국의 빈곤 경감에 긍정적 역할을 한다는 점이 인정되면서 이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포스트 2015 개발체제에서 공적개발원조 이외의 개발재원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면 개발재원으로서 해외송금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됨.

- 본 연구는 동남아를 중심으로 해외송금 현황과 개발효과를 분석하여 향후 해외송금의 개발효과에 대한 국제적 논의에 우리나라가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 우리나라는 지난 20여 년의 짧은 기간 동안 아시아의 주요 이주수용국으로 부상하였고,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과 맞물려 외국인인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
-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대부분이 개발도상국에서 유입되기 때문에, 이들이 본국에 보내는 송금 또한 그 규모가 상당함.
- 동남아는 우리나라와 경제관계가 밀접하고 국내체류 외국인들의 주요 송출지역이기 때문에, 동남아의 사례를 통해 해외송금의 개발효과를 연구하는 것은 의미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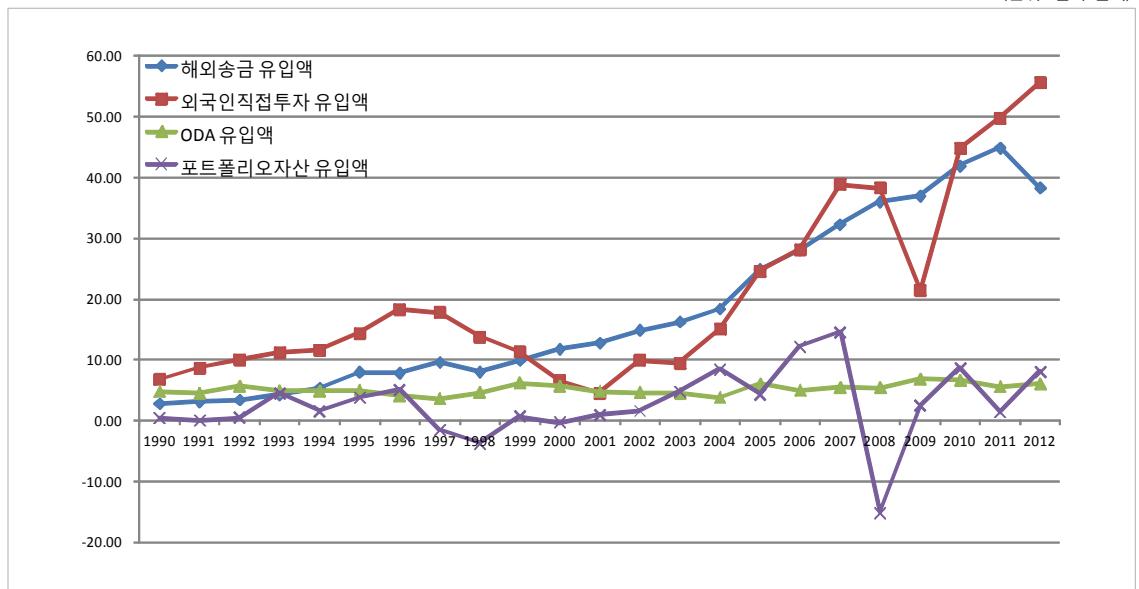
## 2. 조사 및 분석 결과

### 가. 동남아 해외송금 현황

- 동남아에서도 해외송금은 주요한 대외자금 유입액이며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2012년 419억 달러) FDI나 포트폴리오 투자, 그리고 공적개발원조 등 다른 대외자금 유입액에 비해 변동성도 낮음.
- 전 세계 개도국으로 유입되는 송금 중 약 11%가 동남아로 유입됨.

그림 2. 동남아시아의 대외 유입액 추이(1990~2012년)

(단위: 십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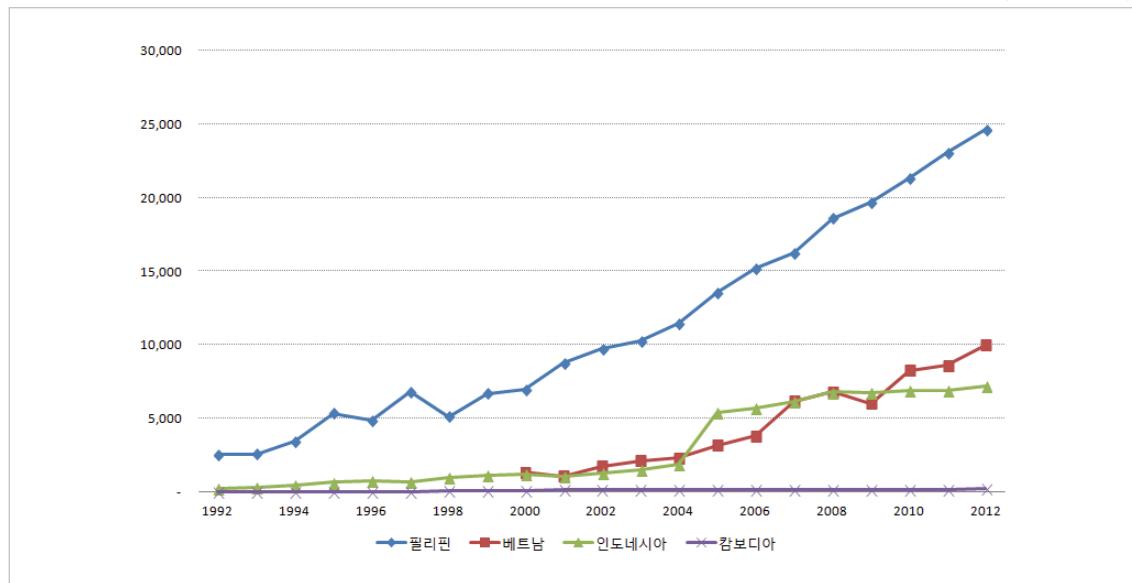


자료: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검색일: 2014. 12. 9).

- 2012년 기준 동남아의 대표적인 인력송출국인 필리핀에 유입된 해외송금 규모는 연간 약 246억 달러, 1인당 송금 규모 약 255달러, GDP 대비 약 10%에 이르며, 2위인 베트남의 송금유입액은 같은 시기 100억 달러, 인도네시아에 72억 달러, 태국에 37억 달러임.
  - 동남아 유입송금의 국가별 구성율을 보면, 필리핀이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점차 다른 나라들도 송금 규모가 커지면서 지역 내 수취국 구성이 다원화되고 있음.

그림 3. 동남아 주요 송금수취국의 송금유입 추이(1992~2012년)

(단위: 백만 달러)



자료: World Bank, Annual Remittances Data, <http://go.worldbank.org/092X1CHHD0>(검색일: 2014. 12. 9).

- 해외송금을 ODA와 비교하면, ODA 수원도가 높은 캄보디아나 라오스를 제외하고 해외송금이 ODA보다 규모가 크다는 점에서 동남아에서 해외송금은 ODA 못지 않은 개발재원으로 활용될 잠재성이 있음.
  - ODA 수원도가 높은 캄보디아나 라오스를 제외하고 필리핀과 베트남, 인도네시아는 1인당 송금수취액이 1인당 ODA 수원액을 훨씬 능가하고 있음.
- 동남아 주요국가들이 주요 송금회랑별로 부담하고 있는 평균송금비용을 보면, 그 편차가 크고, 금융선진국인 서구 송금지급국으로부터의 송금이 오히려 거래비용이 높게 나타남.
  - 송금비용은 송금규모 확대를 저해하기 때문에 송금의 개발효과 제고의 장애물로 인식되어 국제적 차원에서 송금비용 절감 노력이 확대되고 있음.

표 1. 동남아 국가별 송금과 ODA 유입 규모 비교(2012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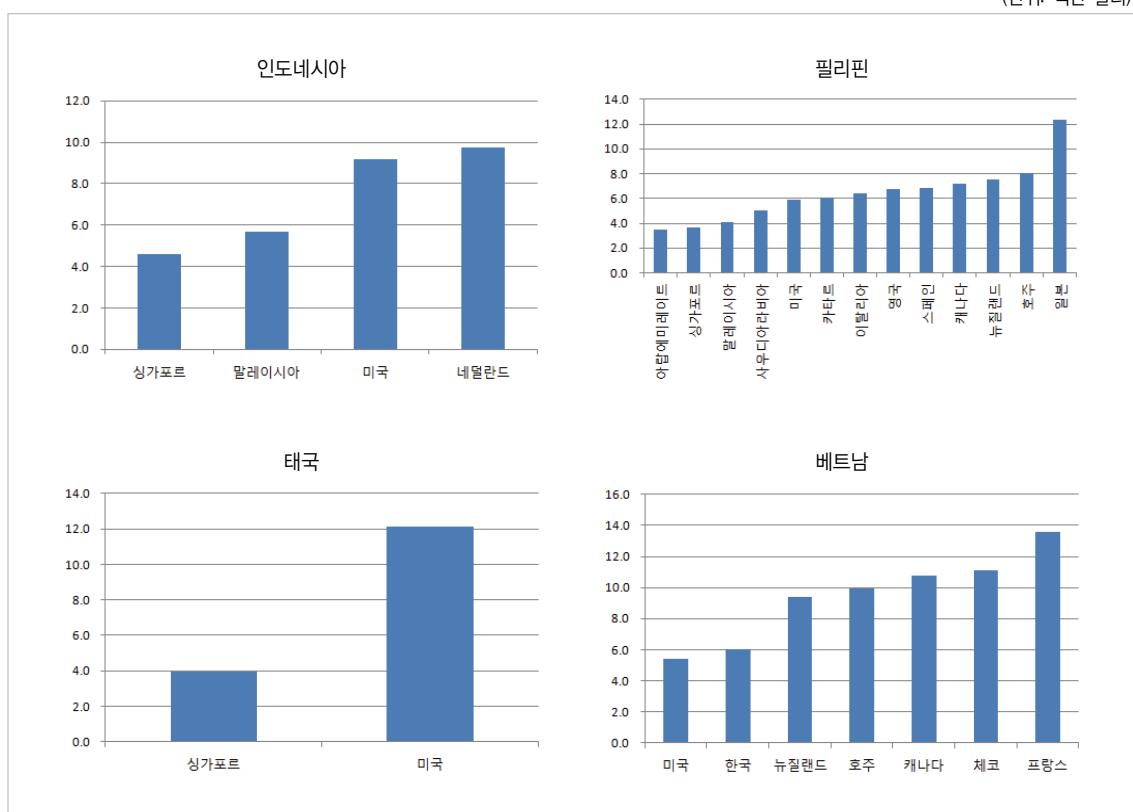
국가	송금			ODA	
	규모 (백만 달러)	1인당 송금 (달러)	GDP 대비 비중(%)	규모 (백만 달러)	1인당 ODA (달러)
필리핀	24,641	254.8	9.8	5	0.1
베트남	10,000	112.6	6.4	4116	46.4
인도네시아	7,212	29.2	0.8	68	0.3
태국	4,713	70.6	1.3	-135	-2.0
캄보디아	256	17.2	1.8	807	54.3
미얀마	127	2.4	-	504	9.5
동티모르	114	99.0	8.4	283	246.4
라오스	59	8.8	0.6	409	61.5

주: ODA는 순유입액 기준임.

자료: World Bank, Annual Remittances Data, <http://go.worldbank.org/092X1CHHD0>(검색일: 2014. 12. 9);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그림 4. 동남아 주요국가 송금회랑 송금비용 비교

(단위: 백만 달러)



자료: World Bank, Remittance Prices Worldwide, <http://remittanceprices.worldbank.org>(검색일: 2014. 12. 9).

## 나. 동남아 해외송금의 개발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 국가별 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해외송금의 개발효과에 있어 전체 개도국과 동남아 간 차 이를 비교하는 데 중점을 둔 실증분석을 실시한 결과 각 분야별로 결과가 다른 것으로 나타남.
  - 빈곤과 투자에 대해서는 동남아 국가들과 여타 개도국 간 해외송금 유입에 대한 효과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분석됨.
  - 소득불평등의 경우 동남아 국가들에서 여타 개도국에 비해 더 심화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동남아 국가에서의 해외송금 유입이 주로 상대적 고소득층에 집중된다는 것을 의미함.
  - 성장과 해외송금과의 관계는 동남아 국가들에서 보다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결과는 해외송금이 성장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다른 개발도상지역에 비해 동남아 국가들에서 크다는 점을 시사함.
  - 금융발전에서 동남아 제외 개도국에서 해외송금의 효과는 긍정적인 반면, 동남아 지역에서는 오히려 해외송금의 유입이 금융부문의 발전에 기여하는 순기능보다 금융부문의 역할을 대체하는 역기능이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다. 한국의 송금지급 현황

- 한국은 2012년 94억 달러를 지급하여 지급송금 규모에서 2012년 기준 세계 13위를 기록하였음.
  - 한국의 2012년 ODA 공여액은 16억 달러로 한국발 해외송금은 한국이 공여하는 ODA의 5.9배에 해당하며, 이는 개도국 평균 3.5배를 크게 상회함.
  - 한국은 OECD DAC 회원국 28개국 중 2012년 공여규모 16위를 기록하고 있어 지급국으로서의 상대적 순위가 ODA 공여국 순위보다 다소 높음.

표 2. ODA 공여액과 송금지급액 비교(2012년)

(단위: 백만 달러)

ODA 공여액			송금지급액		
1	미국	30,687	1	미국	51,093
2	영국	13,892	2	러시아	31,648
3	독일	12,939	3	사우디아라비아	29,493
4	한국	12,028	4	스위스	28,598
5	일본	10,605	5	쿠웨이트	15,874
6	캐나다	5,650	6	독일	15,723
7	네덜란드	5,523	7	프랑스	12,4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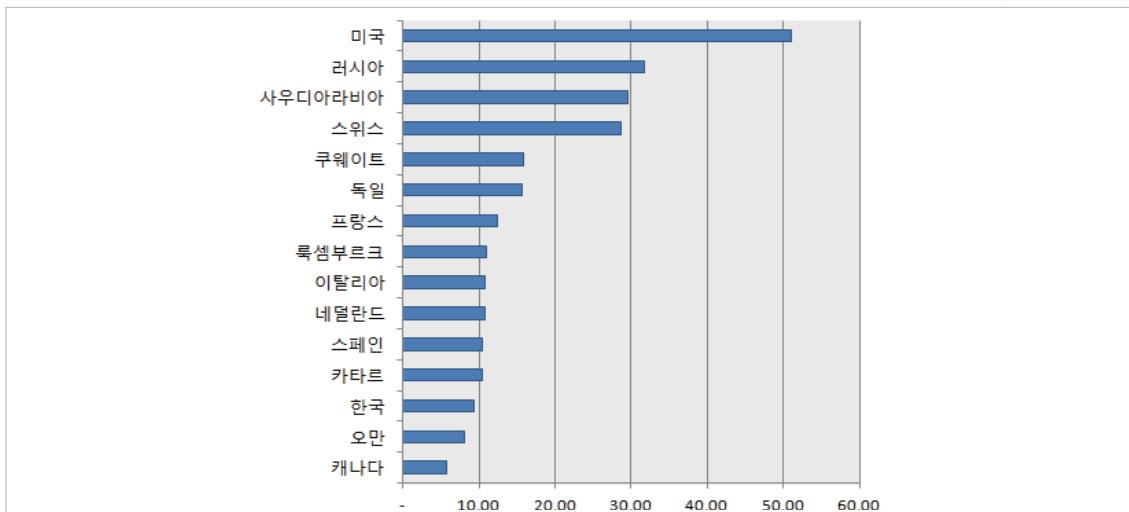
표 2. 계속

ODA 공여액			송금지급액		
8	호주	5,403	8	룩셈부르크	10,976
9	스웨덴	5,240	9	이탈리아	10,754
10	노르웨이	4,753	10	네덜란드	10,751
11	스위스	3,045	11	스페인	10,464
12	이탈리아	2,737	12	카타르	10,413
13	덴마크	2,693	13	한국	9,380
14	벨기에	2,315	14	오만	8,086
15	스페인	2,037	15	캐나다	5,830
16	한국	1,597			

자료: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검색일: 2014. 12. 9).

그림 5. 송금지급국 순위(2012년)

(단위: 십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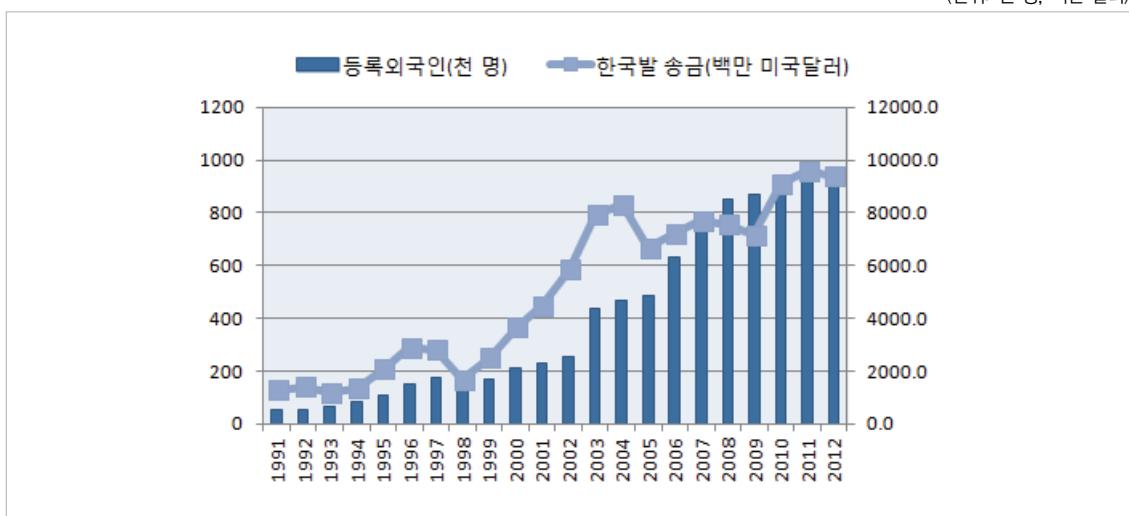
자료: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검색일: 2014. 12. 9).

● 한국은 외국인 인구의 증가로 해외지급송금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한국은 1990년 이후 외국인노동자 유입과 국제결혼의 증가로 아시아의 주요 이주수용국으로 부상하였으며, 2014년 4월 기준으로 단기체류외국인(3개월 미만)과 등록외국인(3개월 이상 장기체류)을 합쳐 모두 163만 8천 명의 외국인이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총 인구의 3.2%).
- 한국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장기체류의 경우 출신국의 69%가 개발도상국 출신이기 때문에 이들 중 상당수가 본국에 송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그림 6. 국내 등록외국인과 송금지급 추이(1991~2012년)

(단위: 천 명, 백만 미국달러)



자료: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검색일: 2014. 12. 9).

### 3. 정책 제언

#### 가. 송금비용 인하와 송금의 개발효과 제고를 위한 지원

- 현재 선진국 중심으로 인력수용국들의 송금비용 인하 노력을 주도하고 있는 G20는 전 세계 평균 송금 비용을 5%로 낮추고 이와 함께 금융포용을 제고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를 모색하고 있음(G20 정상 회의 공동성명, 2014(G20 Leaders' Communiqué 2014)).

표 3. G20 해외송금서비스 원칙의 주요 내용

원칙	주요 내용
1	송금시장의 투명성 및 서비스 이용자 보호 확대
2	금융 인프라 개선을 통해 송금서비스의 효율성 제고
3	송금서비스 관련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4	경쟁적인 송금서비스 시장 환경 조성
5	송금서비스 관련 거버넌스 구축 및 위험관리 방안 마련

자료: BIS and World Bank(2007), p. 4.

- 한국 역시 아시아의 주요 인력수용국으로 이러한 노력에 동참해야 하며, 최근(2014. 12. 15)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가 국가간 공동망을 이용한 국가간 송금 서비스를 베트남을 시작으로 개시한 것은 송금비용 절감 측면에서 매우 고무적인 일이며, 이를 향후 다른 국가로도 확대해야 할 것임.
  - 2014년 3/4분기 200달러 송금 기준으로 한국-베트남 송금비용은 6.4%로 G20 회원국 평균 비용인 7.98%를 하회하였음.
- 이와는 별도로 송금의 개발효과 제고를 위해 국내에 체류하는 개발도상국 출신 외국인근로자와 결혼이주자 등에게 송금시장에 대한 정보제공, 송금활용에 대한 교육, 송금서비스 이용 지원을 포함하는 전향적이고 포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나. 국내 송금 관련 연구인프라 개선

- 우리나라는 송금지급국이기 때문에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들의 송금행태에 대해 체계적인 정보를 송금지급자 조사(remittance sender survey)를 통해 수집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정부가 통계청 주도로 이미 실시하고 있는 외국인고용조사에 송금항목을 신설하여 송금에 대한 체계적 정보를 수집할 필요가 있음.
  - 2012년부터 통계청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외국인고용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이 조사에 송금관련 항목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현재 외국인고용조사는 기본사항(학력, 혼인상태, 거처종류 등), 성별·국적별·체류자격별 경제활동 상태, 취업자 특성사항(종사상 지위, 산업·직업, 취업시간, 근속기간 등) 등 34개 항목으로 이루어짐.
  - 현재 국내에서 이루어진 송금실태 조사는 대부분 외국인근로자에 한정되어 있어 또 다른 주요한 이주형태인 저개발국 배우자의 송금실태를 파악할 수 없음.
  - 2014년 기준으로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출신 주민 160만 명 중 결혼이주자는 24만 명으로 전체의 15.3%를 차지하며, 이는 송금연구의 주요 대상이 되는 외국인근로자의 45%에 해당하는 큰 소집단임.

표 4. 한국내 외국출신 주민 분포와 결혼이주자(2014년)

외국인근로자	결혼이주자		기타	총 이주자
	결혼이민자	혼인귀화자		
538,587 (34.3%)	149,764	90,439	790,680 (50.4%)	1,569,470
	240,203(15.3%)			

자료: 안전행정부(2014).

- 이러한 연구 인프라 구축은 한국의 송금정책 분석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은 물론, 포스트 2015 개발체제하의 개발재원 확대 논의에 있어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데 밑거름이 될 것임.



## 참고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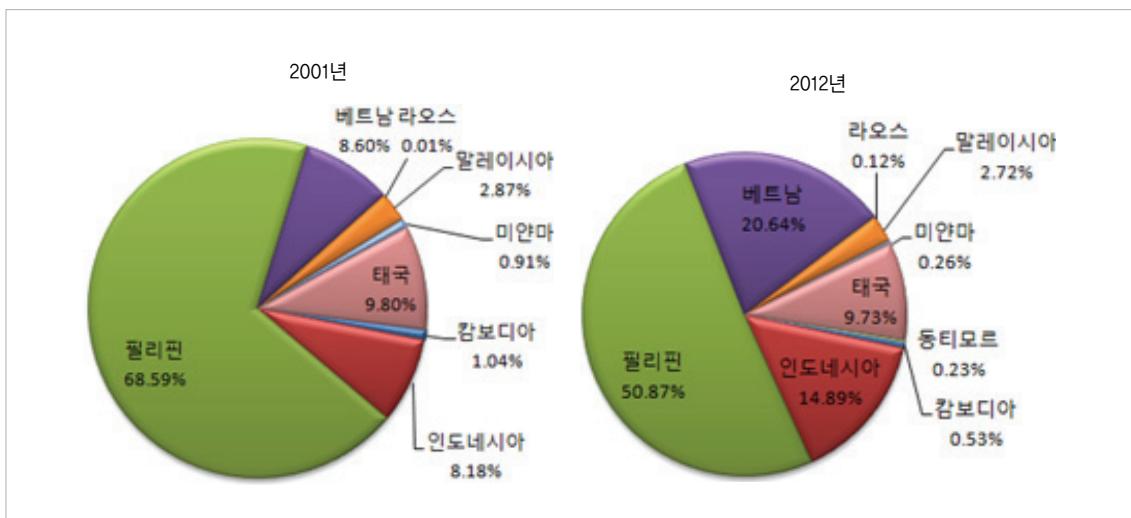
표. 개도국의 지역별 해외송금 유입 추이 비교(1990~2012년)

(단위: 십억 달러)

지역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12년
아시아태평양(동남아 제외)	0.3	1.0	5.0	9.2	33.9	40.0
동남아시아	2.8	7.9	11.8	24.9	41.9	38.3
유럽과 중앙아시아	3.2	4.1	8.2	19.3	32.2	38.7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5.7	13.3	20.1	48.8	55.7	59.5
중동과 북아프리카	9.6	12.1	11.5	23.1	37.7	39.0
남아시아	5.6	10.0	17.2	33.9	82.0	108.1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1.8	3.2	4.8	20.0	28.7	26.7
합계(개도국 전체)	29.0	51.6	78.5	179.2	312.0	350.4

자료: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검색일: 2014. 12. 9).

그림. 동남아 국가별 송금유입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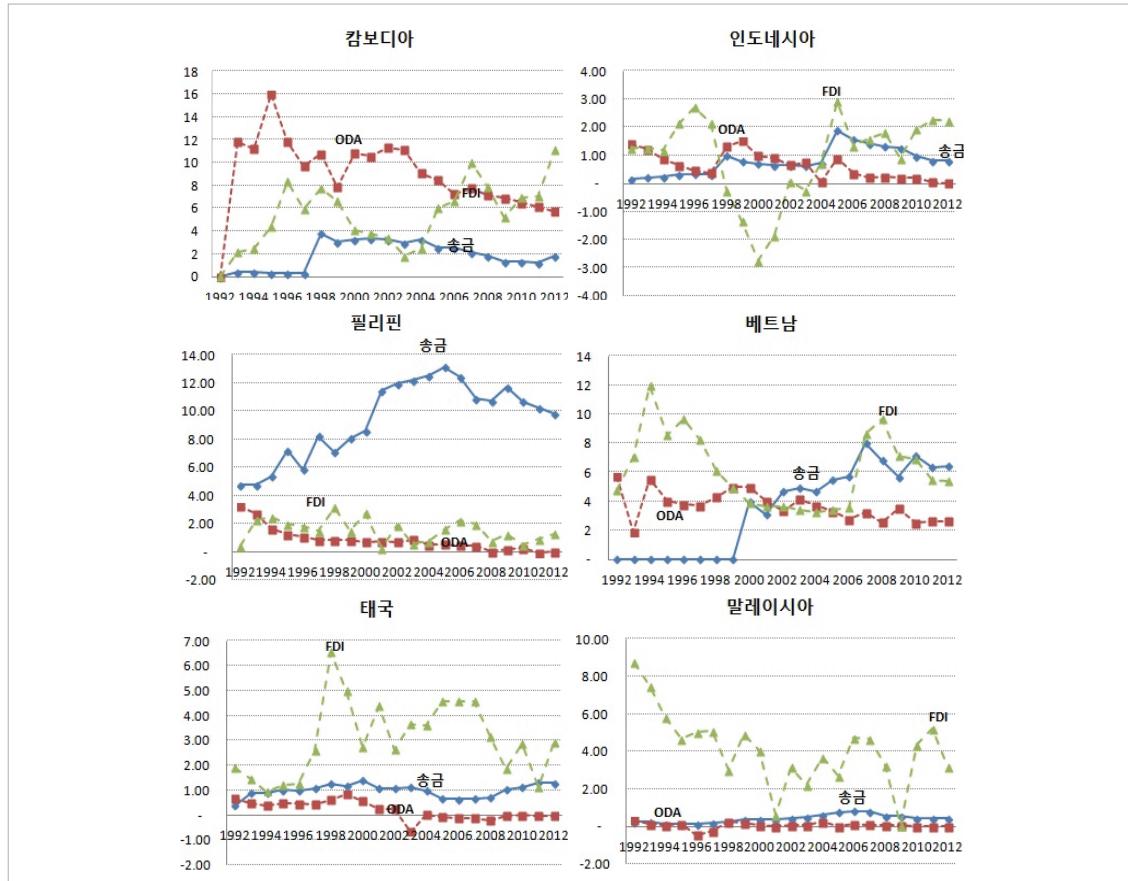


자료: World Bank, Annual Remittances Data, <http://go.worldbank.org/092X1CHHD0>(검색일: 2014. 12. 9).



그림. 아세안 주요 6개국의 송금과 FDI 및 ODA 비교(1993~2012년)

(단위: GDP 대비 %)



자료: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검색일: 2014. 12. 9).

표. 송금비용 절감을 위한 국제사회의 주요 논의 흐름

시기	논의 사항
2004년 6월	G8 정상회담에서 송금비용 절감을 위한 국제공조를 이끌어내기로 합의
2006~07년	세계은행 및 국제결제은행이 해외송금서비스 원칙 발표
2008년 9월	세계은행이 RPW 구축 완료 및 1차 자료 발표
2009년 2월	세계은행이 글로벌송금작업반 설립
2009년 7월	이탈리아 라퀼라에서 개최된 G8 정상회담에서 '5×5 목표' 채택
2010년 11월	서울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담에서 G20 정상들이 송금비용 절감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
2011년 11월	프랑스 칸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담에서 2014년 말까지 '5×5 목표'를 달성하기로 합의

주: RPW: 송금비용데이터베이스(Remittance Prices Worldwide); '5×5 목표'는 송금비용을 5년 내에 5%포인트로 감소시키는 것을 골자로 함.  
자료: BIS and World Bank(2007), p. 51; World Bank(2014a), p. 2, p. 8; World Bank(2014b), p. 4를 참고하여 정리.